

내년도 창업지원에 3조4645억원 투입

정부·지자체, 508개 사업 추진... 집행·관리 방식도 대폭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3조4,6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9일 총 3조4,645억 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해 50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705억 원(5.2%) 증가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융자·보증 분야가 1조4,24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1.1%)을 차지했으며, 기술개발(R&D) 8,648억 원(25.0%), 사업화 8,151억 원

(23.5%) 순으로 배정됐다. 이들 3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90%가 집중됐다.

중앙부처는 총 88개 사업에 3조2,740억 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중기부가 3조734억 원으로 중앙부처 예산의 93.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20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비예산 사업을,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곳, 기초 79곳 등 96개 기관이 총 1,905억 원 규모

로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경남, 경기 등이 주요 투자 지역으로, 전북도는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중기부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 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88개사를 지원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1억 원 증가한 2,575억 원으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와 함께 창

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외주용역비 분할 지급을 허용하고,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술 침해에 대비한 소송보험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규제는 합리화하되 부정행위는 차단해 공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내 버섯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신제품 개발과 가공 제품 확대를 통해 수출 구조 개선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버섯 수출 다변화 시동

신제품 개발·가공 제품 확대로 구조 개선 나서

국내 버섯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신제품 개발과 가공 제품 확대를 통해 수출 구조 개선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버섯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 농업인, 가공업체,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버섯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 달러에서 2024년 3,815만 달러로 6년 사이 33.2% 감소했다. 수출 품목은 팽이버섯과 큰느타리에 집중돼 있고, 수출국도 미국과 호주에 편중된 구조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수출용 신제품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가공 제품으로 품목 확대 △아시아·유럽·미주 등 수출국 다변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과 협업해 현장 감증을 거친 수출용 버섯 품

종을 잇달아 개발했다. 황금색을 띠는 팽이버섯 '아랍'은 폴리페놀과 가바(GABA) 함량이 높아 아시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느타리만가닥버섯 '백마루2'는 식이섬유를 강화해 건강 소비층을 겨냥했으며, 재배 안정성도 우수하다.

느타리류 '설원'은 종간 교배를 통해 큰느타리보다 맛과 대가 크게 지라 식감과 육질이 뛰어나고, 일본 시장을 겨냥한 일새버섯 '은솔'은 항당뇨 효능이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선 버섯 수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공 제품 개발도 병행했다. 느타리만가닥버섯을 원료로 한 체중 조절용 단백질 차 '프로틴 로록'과 영지·상황·노투궁 등이 들어간 약용버섯을 활용한 '유기농 버섯차'가 대표적이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기존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홍콩 등 아시아 신흥 시장과 유럽 고급 식품 시장 공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착공

지방공기업 최초 직접전력구매계약 모델 도입

전북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공급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국립원에특작과화원 유희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7,048㎡ 부지에

1,23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한국전력 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수요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On-Site PPA(직접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공기업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국립원에

특작과화원에 직접 공급되며, 기존 전기요금 대비 약 80% 수준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이 2024년 6월부터 계통포화지역으로 지정돼 2031년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국립원에특작과화원

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제안하고 설득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상업 운전해 들어갈 예정이다. 김대근 사장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최초의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앞으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6년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동 공고

정부의 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 사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절차, 일정 등을 담은 '2026년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동으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중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공고한 시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 및 R&D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이번 통합 공고로 중기부·산업부·R&D 전문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든 기업 지원 R&D 사업 전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026년 R&D 사업에 전년 대비 45% 증가한 총 2조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과제 예산은 7,497억 원으로, 2025년 대

비 2.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요 추진 방향은 △지역 혁신 생태계 중심 R&D 확대 △민간 투자와 연계한 틱스(TIPS) 방식 R&D 강화(신규 3,890억 원)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STTR 사업 추진(신규 1,071억 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2026년 R&D 사업에 전년 대비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과제 투자 규모는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조선 등 첨단·주력 산업 기술혁신 △AI 팩토리화 공업 전환 기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등이

전북테크노파크, 국가기술거래플랫폼 통해 바이오유망기업 성장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의 지원을 받은 바이오모아메디칼(주)이 전북 농생명바이오 기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전북테크노파크가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 이후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기술이전, 시제품 개발, 사업화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모아메디칼(주)은 본 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저항성 전분 기반 토종 품종 '도담쌀' 기술을 이전

받아 비만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개발에 나섰다. 도담쌀은 포만감 유지와 영양 균형에 감점을 지닌 프리바이오틱스 소재로, 향후 개발인정형 소재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테라피 라이스' 개념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모아메디칼(주)은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삭앤다 한끼백런즈'를 개발·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의 동물실험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적용했으며, 고단백질 20.3g과 가르시니아 추출물, 비타민·효소 복합 성분을 포함해 기능성과 기호성을 모두 갖췄다.

또한 회사는 2025년 경남 남해 지역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자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6년에는 재배 규모 확대와 함께 도담쌀 기반 기능성 식품 라인업을 확장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방기업 AI 인프라 지원 확대 건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전북 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CJ제일제당, 메가존클라우드 등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태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상공회를 대표해 민간기업이 정부가 구축한 AI 인프라와 GPU 클러스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원의 시각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내년 3월부터 기업들이 정부 보유 AI 인프라를 기존 비용의 5~1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대전환 실증사업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